



## 정보화 바탕 물적·인적 인프라 조화 실현

이민후 / 고려해운항공

물류협회가 선정한 물류대상 대통령 표창에 고려해운(주)가 선정됐다.

이민후 사장은 "순수국내복합운송업체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국가물류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주력한 결과 이같은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밝

혔다. 고려해운(주)는 10년간의 연속적인 흑자를 이룩함으로써 견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종합물류 회사로 성장 발전을 이루고 있다.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대우와 각종 복리 후생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일에 대한 동기 유발과 만족감 속에서 일하는 인간 중심 경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민후 사장은 인재 육성에 많은 관심과 투자에 노력하고 있다.

(주)고려해운항공 50년간의 역사를 지닌 고려해운주식회사의 항공화물부로 시작하여 '92년에 독립법인으로 발전, '97년 고려해운 해상복합운송부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육상, 해상, 항공화물을 일괄 수송할 수 있는 순수국내 포워딩업체로서 전산시스템 혁신, 물류창고시스템혁신, 전략적성과



도 도입, 교육훈련시스템 혁신의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물적, 인적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의 물류혁신을 구축했다.

일찍부터 물적인프라와 인적인프라의 조화로운 구축으로 선순환의 지속적인 물류혁신을 이루었

다. 이민후 사장은 "물적인프라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물류창고시스템을 혁신하였으며, 약 3년간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와 지식경영의 업무 전산화를 이루어 냈고 인천과 김포의 연계 물류창고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적인프라를 통하여 전략적성과 평가제도시스템과 교육훈련시스템을 혁신하여 자기직무 완결형 인재양성으로 핵심역량강화와 조직의 효율화, 안정화로 중장기 목표를 과학적으로 측정,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내강사제도와 교육환경의 투자로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재무, 인사관리, 고객관리, 데이터 축적을 전산화해 경영효율화는 물론 내부역량과 내부 전략성과 평가시스템을 갖춘 고려해운항공 통해 물류 선진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ko